

영국 Wayve, 종단간 AI 기반 자율주행 플랫폼의 양산 적용 추진

해당국가	영국	기관(기업)	Wayve	동향분야	기술	국토교통 기술분류	도로교통
------	----	--------	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-

□ 영국 Wayve는 종단간(E2E) AI 기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'AI Driver'의 양산 적용을 추진하고 완성차 업체 대상 상용화 기반을 확대

- 해당 기술은 주행 데이터를 직접 학습하는 종단간 AI 방식으로, 차량 탑재 연산장치와 내장 센서만으로 작동하는 것이 특징
 - Wayve는 2017년 종단간 AI 자율주행 기술을 처음 선보인 이후 안전 중심 설계를 적용한 양산형 자율주행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설명
 - AI Driver는 고정밀 지도나 지역별 맞춤 개발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, 완성차 업체에 라이선스 형태로 공급된다고 설명
- Wayve는 지난 1년간 유럽·북미·일본 등 500여 개 도시에서 도시별 사전 설정이나 추가 개발 없이 자율주행을 수행하며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기술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
 - 이는 70여 개국의 다양한 주행 데이터로 학습한 파운데이션 모델 덕분에 새로운 시장에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
 - 적용 범위는 운전자 감독이 필요한 레벨2 자율주행부터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 가능한 레벨3·4 자율주행까지 포괄하며, 기술 성숙도와 적용 환경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

□ Wayve는 양산형 종단간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2026년 로보택시 시범 운영과 2027년 일반 차량 적용 등 상용화를 본격 추진

- 2026년 우버를 통한 로보택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2027년부터 일반 소비자용 차량 출시로 자율주행 상용화를 단계적으로 확대
 - 2026년부터 우버와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 런던에서 첫 운행을 선보이고 2027년부터 일반 차량에 AI Driver를 적용
 - 우버가 차량 운영을 담당하고 Wayve는 레벨4 자율주행 차량에 AI Driver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협력해 전 세계 10개 이상 시장으로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를 추진
- Wayve는 특정 차량에 종속되지 않는 범용 플랫폼을 완성차 업체에 공급해 종단간 AI 기반 자율주행 플랫폼의 적용 확대를 추진
 - Wayve는 차량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완성차·모빌리티 업체에 AI Driver 플랫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 기술의 적용 범위와 시장 확대를 추진
 - Wayve는 종단간 AI가 연구 단계를 넘어 양산형 자율주행 플랫폼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차량과 운행 환경에서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

※ 출처 : Wayve(2026.02.25), Wayve secures \$1.5B to deploy its global autonomy platform